

[대만]

## 대만 중부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출처 : 연합뉴스

대만 정부는 11일 중부 치아이 지방의 한 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H7N3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보건 당국은 이에 따라 오리의 이동을 금지하는 한편 주변지역을 소독하고 이같은 사실은 세계보건기구(WHO)에 정식으로 통보했다. 관계자들은 문제의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강한 것인지 혹은 약한 것인지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철새를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사람에게 의한 전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오리가 비정상적으로 죽은 사례가 없고 모두 건강한 상태에 있어 전문가들도 그 원인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지난 2008년 10월 남부 카오슝 지방의 한 병아리 사육장에서 H5N2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가금류 수출이 3개월 동안 중단됐었다.

타이완 정부가 어제 중부 치아이 지방의 한 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타이완 보건 당국은 오리의 이동을 금지하는 한편 주변지역을 소독하고 이같은 사실을 세계보건기구, WHO에 정식으로 통보했다.

보건 당국은 오리가 철새를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미국]

## 오리들이 점령한 그린

출처 : 스포츠 조선



미국 캘리포니아주 란초 미라지의 미션힐스 골프장에서 벌어진 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 크래프트 나비스코 마지막 라운드가 벌어진 4일(한국시각) 호수를 끼고 있는 6번 홀 그린에 선수들보다 오리들이 먼저 올라와 갤러리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태국]

## 타이완 중부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출처 : KBS뉴스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사람에게 의한 전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타이완에서는 지난 2008년 10월 남부 카오슝 지방의 한 병아리 사육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가금류 수출이 3개월 동안 중단된 바 있다.

[영국]

새끼오리 돌보는  
고릴라의 모성본능

출처 : 파이낸셜뉴스 세계



영국 동물원에 새끼 오리를 자기 자식처럼 돌보는 로랜드 고릴라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올해 4살이 된 고릴라 ‘코메일’은 작은 새끼오리를 그의 몸에 꼭 껴안고 돌보기로 동물원 안에서 유명하다. 하지만 새끼 오리들은 코메일의 애정을 못느끼는 듯 매번 달아나기 바쁘다.

영국 브리스톨 동물원의 대변인은 “고릴라 코메일은 매년 봄 동물원에 오는 새끼오리를 볼 때마다 새끼오리에 애정을 쏟는다”고 말했다.

사실 코메일은 로랜드 고릴라의 멸종을 막기 위해 가임 촉진제 클로미드를 맞은 고릴라로부터 태어났다.

로랜드 고릴라는 최근 60년동안 그 개체가 90% 줄었다. 이는 산림벌채로 로랜드 고릴라 숲의 터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미국]

오리들과 벌이는  
‘한판’

출처 : 뉴시스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화이트워터 센터에서 제7회 자선모금행사 킨더문 오리경주가 열린 가운데 카약 강사 본 커럼이 물에 떠있는 1만7000개의 플라스틱 오리들 틈에서 노를 젓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킨더문(KinderMourn)에서 주최한 이 행사는 부모를 잃은 어린이나 자식을 잃은 부모 및 유족들을 위한 자선모금 행사로 주최측은 행사 수일 전에 오리들 모두 판매했다고 밝혔다.

